

전북 청년의 일자리 질 인식과 정주 여건 개선 방향

연구책임

전희진 책임연구위원

연구진

전아람 연구원

J THINK



정책브리프 요약

- 전북 청년의 지역 이탈 방지와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18~39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고용 경험, 일자리 인식, 정책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일자리 실태)** 전북 청년의 월 평균 임금은 293.8만원이나 희망 임금은 369.2만원으로 약 75만원의 인식 격차가 존재하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3시간으로 나타남
- **(기업 규모)** 응답자의 26.5%가 30~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선호하며, 500인 이상 대기업 종사 비중은 6.6%로 지역 내 일자리 선택지가 제한적인 구조임
- **(유연 근무)** 현재 유연근무제 실시율은 27.0%로 낮은 수준이나, 청년들은 개인 시간 확보를 위해 시간선택제(30.6%) 및 시차출퇴근형(23.8%)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 **(만족도 및 이직)** 일자리 만족도는 보통 이상(3.28점)이나 임금(3.05점) 및 역량개발(3.05점), 경력향상(3.11점) 지표는 평균을 하회하며, 청년의 27.7%는 1년 내 이직 의사가 있는 잠재적 이동 집단으로 볼 수 있음
- **(정주 여건)** 전북에 계속 거주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지역의 발전가능성(55.4%)과 생업공간(52.8%)을 꼽아, 단순 일자리 존부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함
- **(정책 수요)** 구직자는 자격증 취득 등 스펙 형성 지원(43.1%)을, 직장인은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54.7%)과 자기계발 지원(37.2%)을 가장 필요로 함
- **(주거 정책)** 초기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목돈대출 지원(64.4%)과 보증금 보호 강화(42.3%)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음
- **(정책 제언)** 전북 청년의 다원화된 가치관을 반영하여 소득·생계 안정, 일·삶 균형(워라벨), 성장·경력개발 등 지향점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과 입체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됨

* 본 브리프는 전북연구원 정책과제 「전북형 청년 일자리 질적 향상 방안 연구(25JU26)」의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

I. 전북 청년 일자리 인식 조사의 필요성

청년 유출의 핵심 기제 파악

- 전북 청년의 지속적인 수도권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 심화는 일자리·정주 기반의 취약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청년이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삶의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전북 청년의 실제 직무 경험과 일자리 조건,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산업군별 일자리 특성과 질적 수준을 유형화하여 전북의 산업·사회 구조에 적합한 청년 일자리 질 향상 및 정주 지원 정책모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북에 거주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전북에서 취업 또는 구직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 경험, 일자리 인식·선호, 정주 인식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 설계

구분	세부내용
조사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2025년 10월 3일(금), 총 12일간
조사대상	- 18세 이상 39세 미만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대상 (전북 거주 또는 최근 3년 이내 전북에서 취업·구직 경험 보유자)
표본크기	- 총 500명 정도(표본오차 약 ±4.4%, 95% 신뢰수준)
표본추출	- 할당표본추출법(성별을 고려한 권역별*연령대별 제곱근 비례 배분법 적용) * 권역을 6개 범주로 설정 : 전주, 군산·김제, 익산·완주, 무주·진안·장수, 임실·순창·남원, 고창·부안·정읍 * 연령대를 4개 범주로 설정 :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

조사 내용

- 응답자 기본정보(11문항):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거주지, 현재 고용상태, 산업·직종 등
- 전북 청년 일자리 실태 및 수요(33문항): 현재 및 과거 일자리 경험,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 이직·이탈 경험, 일자리 질 평가, 일자리 선택 기준, 산업군별 일자리 선호 및 수요 등
- 전북 청년 일자리·삶·정주 정책 수요(4문항): 주거·교통·복지·여가 등 정주 여건과의 연계 인식, 전북 및 시·군 청년 일자리·정주 정책 인지도,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 영역 및 사업 유형 등
- (데이터 해석 시 유의사항) 본 브리프의 분석 결과는 5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전체의 실제 통계치와는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수치 자체보다는 청년들의 전반적인 인식 흐름과 집단 간 비교 경향을 중심으로 해석할 것을 권장함

II. 전북 청년 일자리 실태 및 수요

1. 일자리 선택 기준과 선호 규모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 전북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를 조사(복수응답)한 결과, 응답자의 86.9%(435명)가 「임금수준」을 선택함
 - 그 다음으로 「고용안정성(74.6%)」, 「근로시간(52.1%)」, 「출퇴근거리(50.7%)」, 「복리후생(35.2%)」, 「적성·흥미(28.1%)」, 「업무내용(25.3%)」, 「미래비전(20.8%)」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조건과 고용 안정, 시간·공간적 조건이 1차적인 고려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함
- 한편 적성·흥미, 업무내용, 미래비전 등 비경제적·경력적 요소도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들이 일자리 선택 시 “소득·안정성”과 “경력·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가능함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전북 청년 선호 기업규모

- 전북 청년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향후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6.5% (133명)가 「30~99인 규모」를 선택함
 - 그 다음으로 「10~29인 규모(18.5%)」, 「1~4인 규모(16.5%)」, 「100~299인 규모(10.9%)」, 「5~9인 규모(9.1%)」, 「500인 이상 규모(6.6%)」 순으로 나타남
- 전북 청년은 전반적으로 소규모(1~29인) 사업장과 중소 규모(30~99인) 사업장에서 현재 종사하거나, 현실적으로 진입 가능하다고 보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
 - 특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비중이 낮다는 결과는, 단순히 대기업 선호도가 낮아서라기보다는 지역 내 대규모 기업 입지 부족, 채용기회의 제약 등 구조적 조건이 청년의 선택 자체를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을 함께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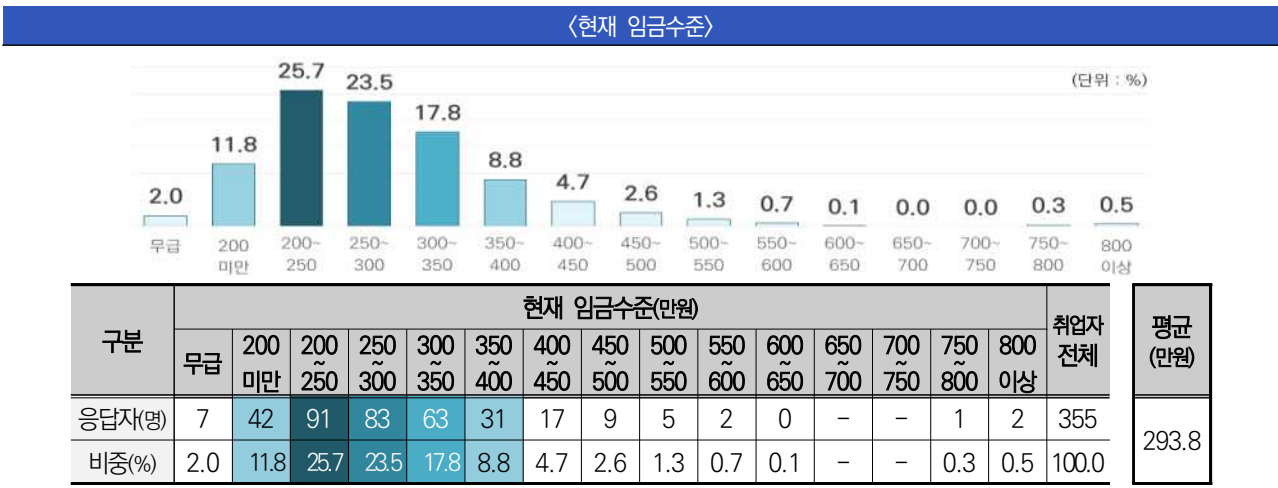
〈현재 종사하거나 향후 종사하고자 하는 기업규모〉



2. 소득과 시간의 현실과 기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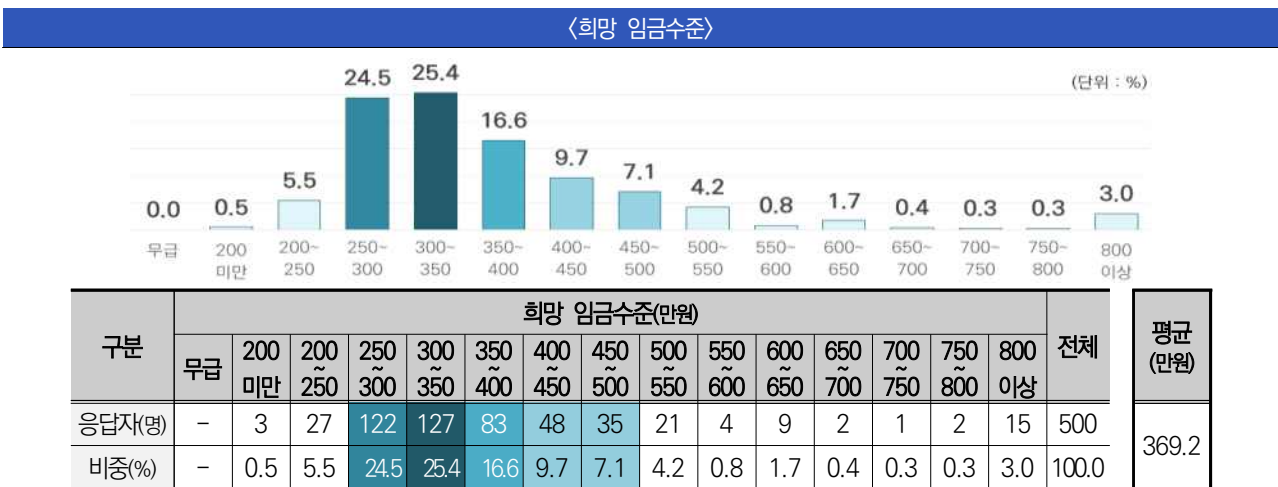
임금수준

- 전북 청년의 현재 임금수준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5.7%(91명)가 「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월 평균 임금은 293.8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3.5%)」,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17.8%)」, 「200만원 미만(11.8%)」,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8.8%)」 등의 순으로 분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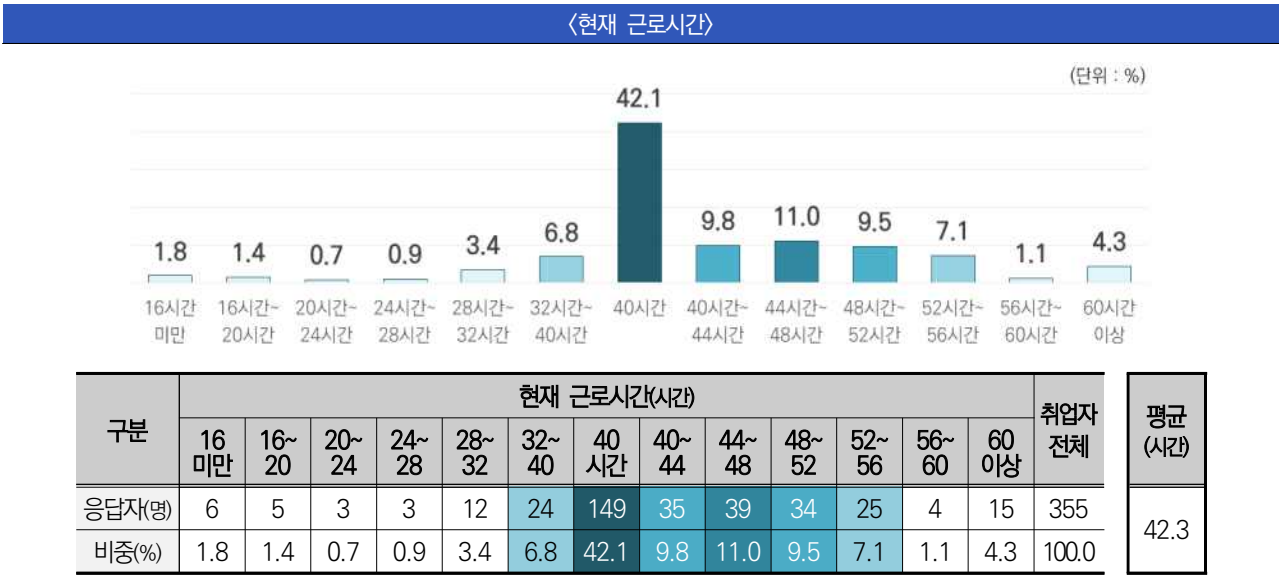
희망 임금수준

- 전북 청년들의 희망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4%(127명)가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희망 월 평균 임금은 369.2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4.5%)」, 「3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6.6%)」, 「40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9.7%)」, 「45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7.1%)」 순으로 분포함
- 앞서 살펴본 현재 임금수준(평균 293.8만원)과 비교할 때, 전북 청년이 기대하는 희망 임금수준은 약 70만 원 내외의 격차를 보이며, 이는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에서 제공되는 보상 수준이 생활비·가구부양·노동 강도 등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근로시간

- 전북 청년들의 일주일 동안 현재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1%(149명)가 「40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3시간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44시간 이상~48시간 미만(11.0%)」, 「40시간 이상~44시간 미만(9.8%)」,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9.5%)」, 「52시간 이상~56시간 미만(7.1%)」 순으로 분포하여,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전후한 구간과 44~52시간 구간에 응답이 집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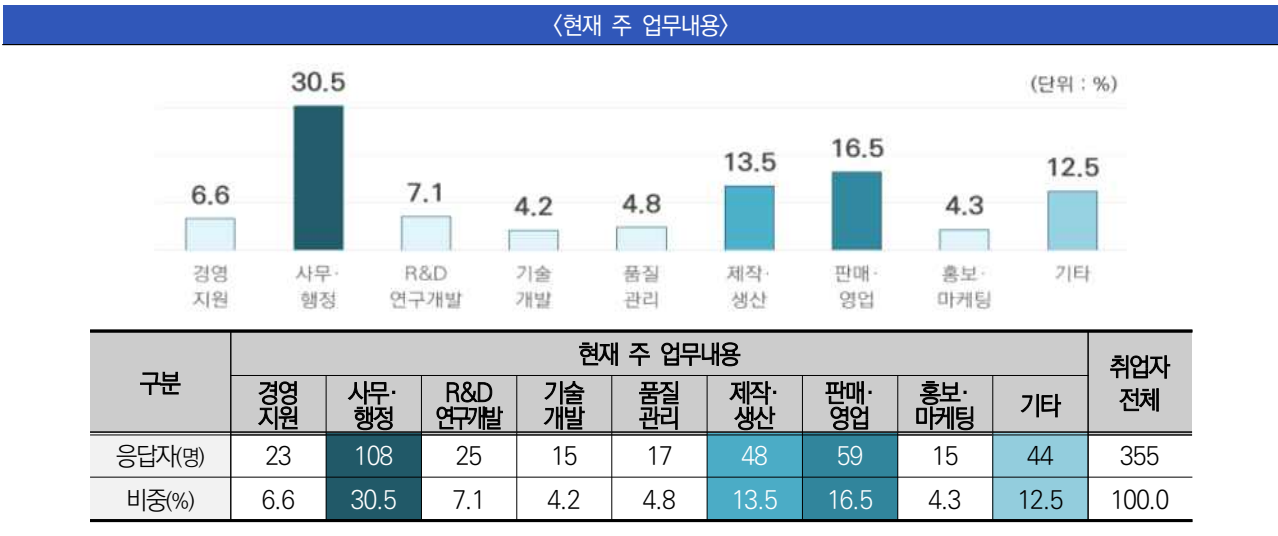
희망 근로시간

- 전북 청년들의 일주일 동안 희망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1%(251명)가 「40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주당 평균 희망 근로시간은 39.5시간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21.2%)」, 「40시간 이상~44시간 미만(7.7%)」, 「28시간 이상~32시간 미만(5.2%)」, 「44시간 이상~48시간 미만(5.0%)」 순으로 분포하여, 대다수 청년이 '주 40시간 전후' 혹은 그보다 다소 짧은 근로시간을 선호하는 양상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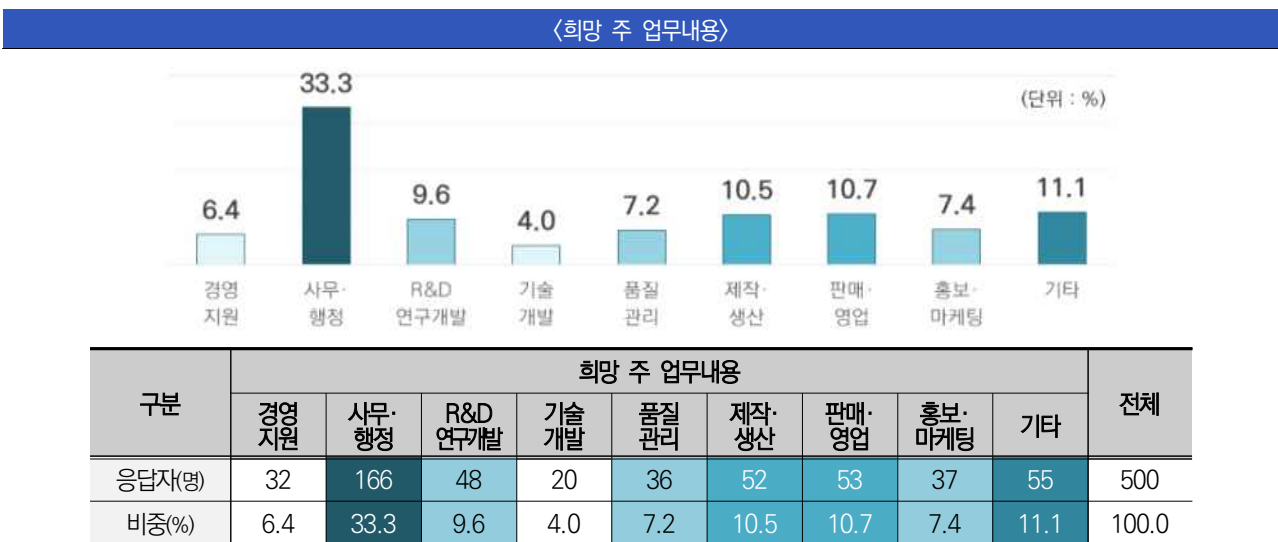
주 업무내용

- 전북 청년들의 현재 주 업무내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5%(108명)가 「사무·행정」이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판매·영업(16.5%)」, 「제작·생산(13.5%)」, 「기타(서비스)(12.5%)」, 「R&D·연구개발(7.1%)」, 「경영지원(6.6%)」, 「품질관리(4.8%)」 순으로 분포함



희망 주 업무내용

- 전북 청년들의 희망 주 업무내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3%(166명)가 「사무·행정」이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기타(서비스)(11.1%)」, 「판매·영업(10.7%)」, 「제작·생산(10.5%)」, 「R&D·연구개발(9.6%)」, 「홍보·마케팅(7.4%)」, 「품질관리(7.2%)」 순으로 분포함
- 전반적으로 현재 주 업무와 마찬가지로 사무·행정, 서비스, 제작·생산 등이 주요 축을 이루되, 일부 집단에서는 R&D·홍보·마케팅 등 전문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선호도 함께 확인되고 있어, 전북 청년의 직무 희망은 단순·보조업무보다는 안정성과 전문성·경력 형성이 가능한 직무 구조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음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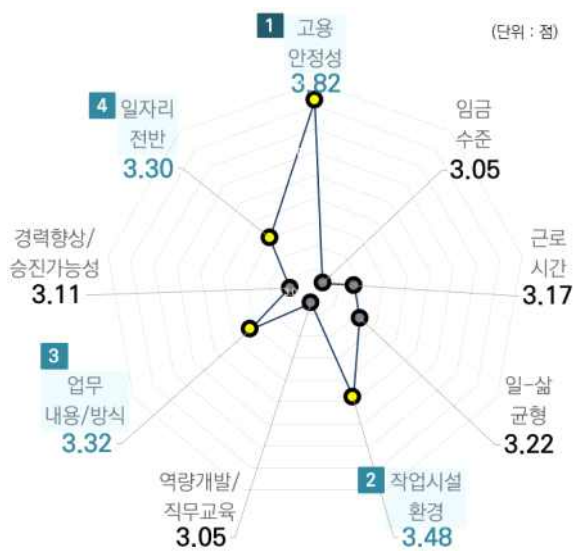
III. 전북 청년 일자리 만족도와 이직 의향

1. 일자리 만족도 평가

일자리 만족도

- 전북 청년들에게 취업 이후 9가지 일자리 지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일자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8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남
 - [일자리 지표] ① 고용안정성, ② 임금수준, ③ 근로시간, ④ 일-삶 균형, ⑤ 작업시설환경, ⑥ 역량개발·직무교육, ⑦ 업무내용·방식, ⑧ 경력향상·승진가능성, ⑨ 일자리 전반
- 9가지 일자리 지표 중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3.82점으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작업시설환경(3.48점)», 「업무내용·방식(3.32점)», 「일자리 전반(3.30점)」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평균(3.28점)을 상회함
 - 반면, 「임금수준(3.05점)», 「역량개발·직무교육(3.05점)», 「경력향상·승진가능성(3.11점)», 「근로시간(3.17점)», 「일-삶 균형(3.22점)» 등 소득·경력·시간 관련 지표는 평균(3.28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 만족도〉



구분	점수	순위
고용안정성	3.82	1
작업시설환경	3.48	2
업무내용/방식	3.32	3
일자리 전반	3.30	4
일-삶 균형	3.22	5
근로시간	3.17	6
경력향상/승진가능성	3.11	7
역량개발/직무교육	3.05	8
임금수준	3.05	8
취업자 전체 평균	3.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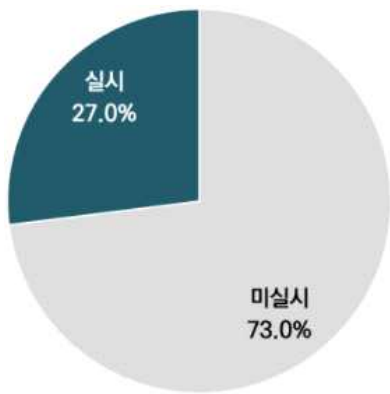
주. 5점 척도 사용 <매우 불만족(1점) ~ 매우 만족(5점)>

2. 유연근무제와 이직의향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및 유형

- 전북 청년들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0%(96명)가 「실시함」이라고 응답함
- 현 시점에서 전북 청년이 경험하는 유연근무제 실시 비율은 3명 중 1명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앞서 살펴본 일·생활균형 지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형태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보는 아직 제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함

〈유연근로제 실시 여부〉



구분	응답자(명)	비중(%)
미실시	259	73.0
실시	96	27.0
취업자 전체	355	100.0

〈유연근로제 실시 유형 (복수응답)〉



구분	유연근무제 실시 유형							취업자 전체
	시간선택제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응답자(명)	30	53	25	5	8	7	-	96
비중(%)	31.3	55.9	26.1	5.5	8.6	7.0	-	100.0

유연근무제 희망 유형

- 전북 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6% (115명)가 「시간선택제」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시차출퇴근형(23.8%)」, 「근무시간선택형(19.6%)」, 「재택근무형(10.2%)」, 「집약근무형(8.7%)」, 「재량근무형(6.6%)」, 「스마트워크근무형(0.5%)」 순으로 나타나, 현재 주로 경험하고 있는 시차출퇴근형과 달리, 청년들은 '근무시간대를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양상 확인

〈유연근무제 희망 유형〉



구분	유연근무제 희망 유형							전체
	시간 선택제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	
응답자(명)	115	90	74	33	25	38	2	377
비중(%)	30.6	23.8	19.6	8.7	6.6	10.2	0.5	100.0

- 전북 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0%(60명)가 「개인시간 확보」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자기계발(19.8%)」, 「근로시간 단축(10.8%)」, 「자녀돌봄(8.3%)」, 「자녀보육(4.9%)」, 「본인건강(3.3%)」, 「기타(1.0%)」 순으로 나타나, 개인시간·자기계발·돌봄·건강 등 '생활 영역'과 직접 연결된 이유가 우세하게 나타남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구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전체
	근로시간 단축	개인시간 확보	자기 계발	본인 건강	자녀 보육	자녀 돌봄	기타	
응답자(명)	12	60	23	4	6	10	1	115
비중(%)	10.8	52.0	19.8	3.3	4.9	8.3	1.0	100.0

일자리 이직의향

- 향후 1년 이내에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7%(98명)가 「의향 있음」이라고 응답한 반면, 45.5%(162명)는 「의향 없음」이라고 응답함. 전체 평균은 2.67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다수 청년이 현재 일 자리에 머무를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약 3명 중 1명은 이직을 고려하는 잠재 이동 집단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 됨
- 범주별 「일자리 이직의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향후 1년 이내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 기반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집단은 「남성」 집단보다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일 지역·유사 조건에서도 여성 청년의 직장 지속 가능성이 더 불안정하게 체감되고 있음을 시사함
 - 연령대별로는 「18세~24세」, 「25세~29세」 집단이 「35세~39세」 집단보다 이직 의향이 뚜렷이 높아, 초기·중기 경력 단계에서 일자리 탐색과 이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됨
 - 가구형태별로는 「미혼+독립」, 「미혼+종속」 집단이 「기혼+자녀없음」, 「기혼+자녀있음」 집단보다 이직 의향이 높아, 가족책임을 지지 않은 청년일수록 일자리 변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이 나타남

〈일자리 이직의향〉



구분	일자리 이직의향					취업자 전체 (n,100%)	평균 (점)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응답자(명)	90	72	95	64	35	355	2.67
비중(%)	25.2	20.3	26.7	18.0	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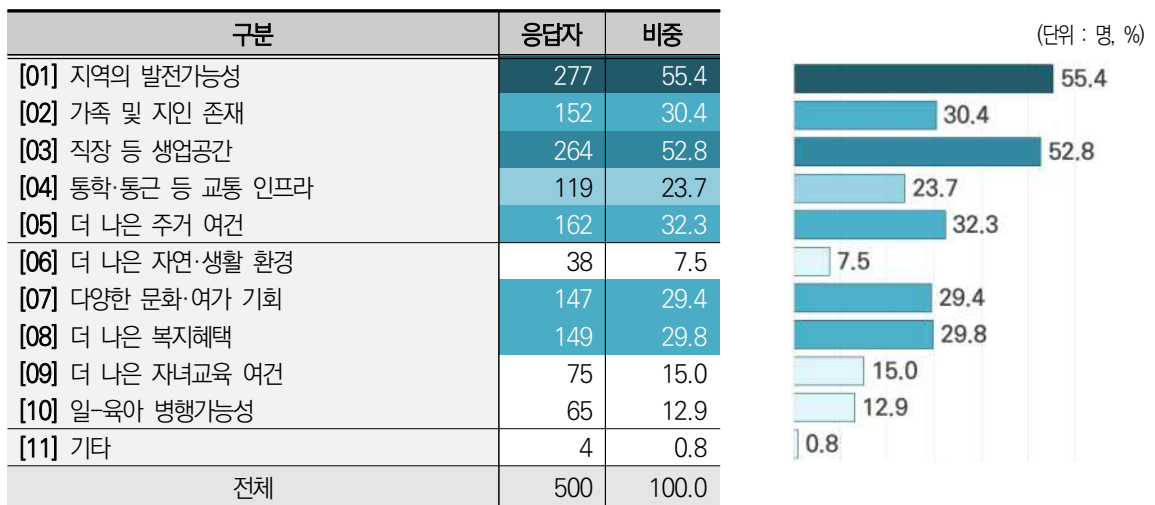
IV. 전북 청년 ‘일자리-삶’ 정책 수요

1. 정주를 위한 핵심 요건

거주 고려요인

- 전북 청년들이 전북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을 살펴본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55.4%(277명)가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선택했으며, 이어 「직장 등 생업공간(52.8%)」, 「더 나은 주거 여건(32.3%)」, 「가족 및 지인 존재(30.4%)」, 「더 나은 복지혜택(29.8%)」, 「다양한 문화·여가 기회(29.4%)」, 「교통 인프라(23.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청년의 지역 정주 결정은 단순히 현재 일자리 존부만이 아니라, 지역 자체의 미래 성장성, 안정적인 생업 기반, 주거·복지·문화·교통 여건 등 생활 전반의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역 패키지 가치’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전북 청년 거주 고려요인 (복수응답)〉



구분	전북 청년 거주 고려요인											전체 (n, 100%)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기타	
전체	55.4	30.4	52.8	23.7	32.3	7.5	29.4	29.8	15.0	12.9	0.8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9.1	25.7	47.9	30.3	35.2	8.4	30.6	27.7	11.5	9.3	-	145
취업자	53.9	32.3	54.7	21.0	31.1	7.2	28.9	30.6	16.4	14.4	1.2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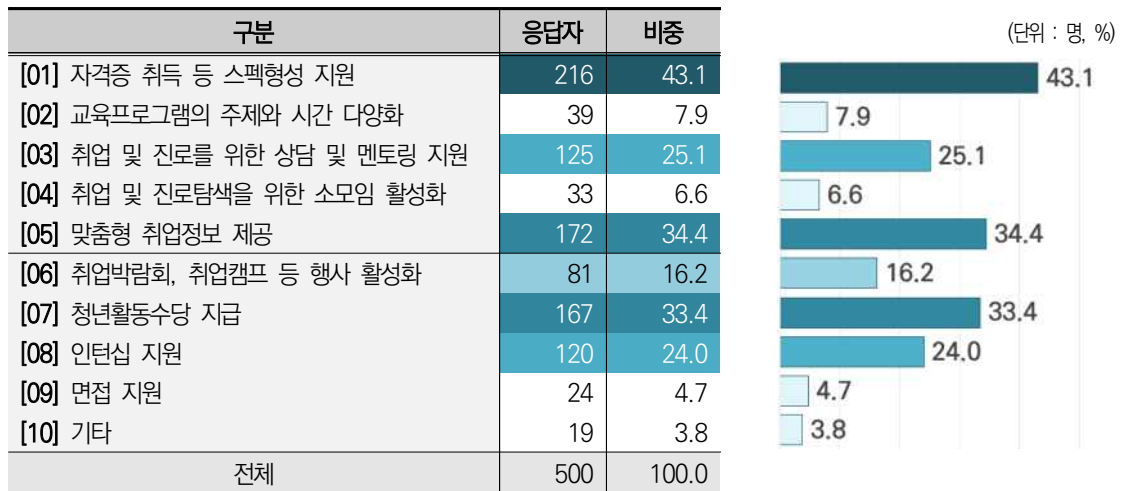
(단위 : %, 명)

2. 대상별 맞춤형 정책 수요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 전북 청년 구직자에게 필요한 일자리정책을 살펴본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43.1%(216명)가 「자격증 취득 등 스펙형성 지원」을 선택했으며, 이어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34.4%)」, 「청년활동수당 지급(33.4%)」,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상담 및 멘토링 지원(25.1%)」, 「인턴십 지원(24.0%)」, 「취업박람회 등 행사 활성화(16.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청년 구직자들이 단순히 ‘일자리 알선’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스펙 형성, 정보 접근성 제고, 구직 단계의 소득·활동 지원, 경험 축적(인턴십)과 진로 탐색(상담·멘토링)을 결합한 종합적 지원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전북 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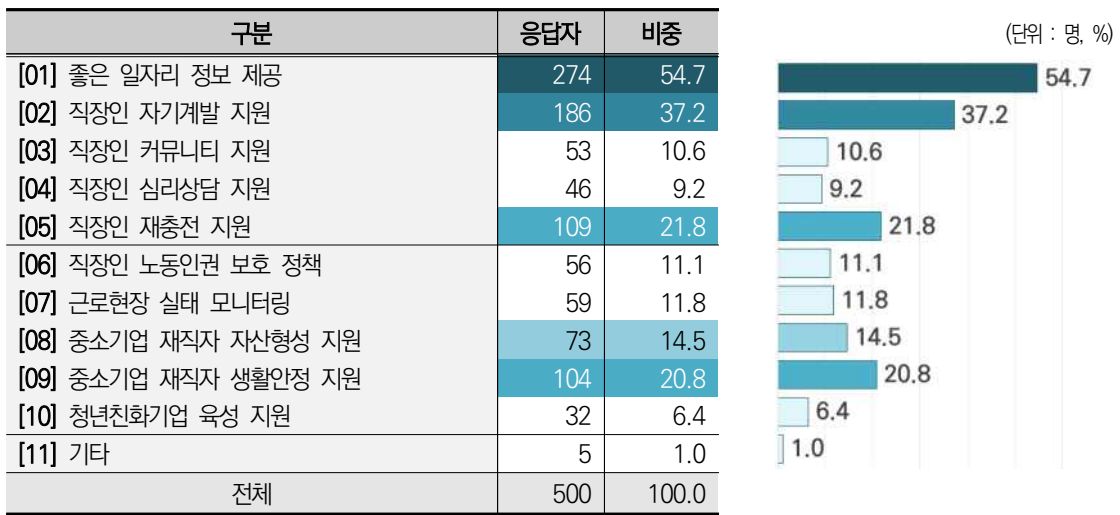
(단위 : %, 명)

구분	전북 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전체 (n, 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기타	
전체	43.1	7.9	25.1	6.6	34.4	16.2	33.4	24.0	4.7	3.8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7.5	5.2	22.4	5.1	25.1	14.4	35.2	33.5	4.7	0.3	145
취업자	37.2	8.9	26.2	7.2	38.2	17.0	32.7	20.1	4.7	5.2	355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 전북 청년 직장인에게 필요한 일자리정책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54.7%(274명)가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을 선택했으며, 이어 「직장인 자기계발 지원(37.2%)」, 「직장인 재충전 지원(21.8%)」, 「중소기업 재직자 생활인정 지원(20.8%)」,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형성 지원(14.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과 경력·역량 개발, 소득·자산 기반 안정, 심리적·신체적 재충전을 포괄하는 ‘질적 개선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전북 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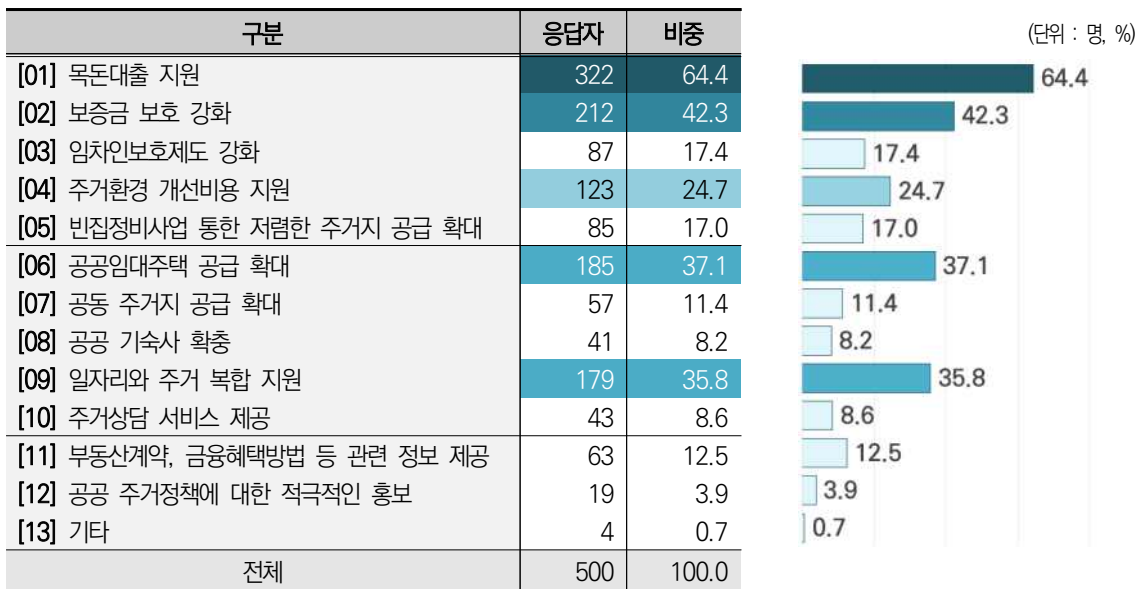
구분	전북 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전체 (n, 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수요 10	기타	
전체	54.7	37.2	10.6	9.2	21.8	11.1	11.8	14.5	20.8	6.4	1.0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60.0	43.2	14.1	10.8	12.0	11.8	12.2	12.4	20.9	4.5	1.4	145
취업자	52.6	34.7	9.1	8.6	25.7	10.8	11.6	15.4	20.7	7.2	0.9	355

(단위 : %, 명)

주거정책

- 전북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을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64.4%(322명)가 「목돈대출 지원」을 선택했으며, 이어 「보증금 보호 강화(42.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37.1%)」, 「일자리와 주거 복합 지원(35.8%)」,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24.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 청년들이 ‘월세·전세 보증금 마련’과 임대차 관계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 임대주택 확충보다 초기 주거비 진입장벽 완화 + 보증금 안전성 강화 +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을 결합한 종합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전북 청년 주거정책 수요 (복수응답)〉



(단위 : %, 명)

구분	전북 청년 주거정책 수요													전체 (n, 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수요 10	수요 11	수요 12	기타	
전체	64.4	42.3	17.4	24.7	17.0	37.1	11.4	8.2	35.8	8.6	12.5	3.9	0.7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8.7	43.3	18.9	28.9	14.8	31.2	14.8	6.8	41.0	12.6	12.4	3.5	-	145
취업자	66.7	41.9	16.9	23.0	17.9	39.4	10.0	8.7	33.7	6.9	12.5	4.0	1.0	355

V. 전북 청년 일자리 인식 및 정책적 시사점

일자리 실태 및 인식 현황

- **보상 수준의 미스매치:** 현재 월 평균 임금(293.8만원)과 희망 임금(369.2만원) 사이에 약 75만원의 격차가 존재하여 보상 만족도가 낮음
- **기업 규모 편중:** 응답자의 26.5%가 30~99인 규모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선호하는 반면, 500인 이상 대기업 비중은 6.6%에 불과해 지역 내 일자리 선택지가 제한적임
- **근로시간 및 환경:**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3시간이나 응답자의 50.1%가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하여 시간 주권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유연근무제 미흡:** 유연근무제 실시율은 27.0%에 불과하나, 시간선택제(30.6%) 및 시차출퇴근형(23.8%) 등 근무 형태 유연화에 대한 수요는 뚜렷함

일자리 만족도 및 이직 의향

- **지표별 만족도 편차:** 고용안정성(3.82점)과 작업환경(3.48점) 만족도는 높으나, 임금수준(3.05점) 및 역량개발(3.05점), 경력향상(3.11점) 등 미래 지향적 지표는 평균(3.28점)을 하회함
- **이직 잠재성:** 청년의 27.7%가 1년 내 이직 의향이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 여성, 20대 초기 경력 집단에서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영역별 정책 수요

- **정주 고려 요인:** 지역 발전가능성(55.4%)과 생업공간(52.8%)이 정주 결정의 핵심이며, 주거·복지·문화가 결합된 '지역 패키지 가치'를 중시함
- **구직 단계:** 자격증 취득 등 스펙 형성 지원(43.1%)과 청년활동수당(33.4%) 등 진입 단계의 직접적 지원 수요가 높음
- **재직 단계:**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54.7%)과 자기계발 지원(37.2%) 등 현재 직장을 넘어선 경력 설계 지원을 요구함
- **주거 정책:** 목돈대출 지원(64.4%)과 보증금 보호 강화(42.3%) 등 초기 자산 부족에 따른 주거 불안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음

종합 제언: 다원적 가치관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

- 전북 청년의 일자리 인식은 단일하지 않으며, 설문 데이터 분석 결과 **소득, 삶의 질, 성장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에 따라 정책 수요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임. 이에 향후 정책 수립 시에는 이러한 다원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유형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입체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존재함
- **첫째, '소득·생계 안정 우선형'을 위한 경제적 안착 지원**
 - 미취업자 및 제조업 종사자 등에서 두드러지는 유형으로, 실질 임금 격차 해소가 정책의 핵심임
 - 단순 임금 보조를 넘어 목돈 대출 및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생활 안정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야 함
- **둘째, '워라벨·생활안정 지향형'을 위한 일·삶 균형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시간 주권 확보와 주거 안정을 지역 안착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함
 - 시간선택제 및 시차출퇴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복합 지원 모델을 통해 정주 만족도를 높여야 함
- **셋째, '성장·경력개발 지향형'을 위한 역량 강화 및 미래 비전 제시**
 - 전문직 및 공공부문 지망 청년층에서 높게 나타나며, 직무 교육과 경력 향상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함
 - 재직자 대상의 고도화된 직무 교육 지원은 물론, 지역 내 우수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경로를 열어주어야 함
- 결론적으로, 전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은 개별 청년이 처한 고용 형태와 생애 주기,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 단순히 '일자리 공급'에 치중하기보다 **소득-시간-경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지원 계획을 설립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때,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역 정주를 이끌어낼 수 있음

Vol. 68
POLICY BRIEF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이 정책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